

세상정신으로 인한 각종 유혹문제에 관하여

발제자: 유병수목사(사랑샘교회)

들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며, 어떤 면에서 전혀 불가능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이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인데,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겐 그럴 수 있는 근거나 능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일은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원리로만 할 수 있는, 사람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밖에 있는, 이 복음의 일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공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일이 되어지거나, 혹은 왜곡되고 뒤틀린 다른 복음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방식, 혹은 복음의 원리는 어떤 것 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방식입니다. 즉, 이 진리의 방식만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으며,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성도 또한 더 이상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편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방식을 포기하거나, 버리며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역시 목회자들이 있으며, 그 많은 책임 또한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진리를 맡아,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며,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포기하고 버리며, 왜곡시키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주된 원인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목회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즉, 목회자가 회심하지 않은 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혹시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리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며, 이런 지식을 가진 목회자 또한, 자신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기독교의 진리들을 얼마든지 버리거나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의 부재입니다. 즉, 누군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목회자가 되었을지라도 목회자가 진리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지식이 결여 될 때, 목회자는 얼마든지 진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혹은 왜곡된 방식으로 목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목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렇지만, 특별

히 이제 한참,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전도사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 그들이 목회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이 바른 신학이나 진리에 기초한 방식이 아닌, 이 시대와 사람들이 요청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에 편승한, 즉 효과와 효율에 중점을 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이자,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신학의 부재이자, 또한 진리에 근거한 바른 목회방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의 타락과 변질의 주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던 토저박사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자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목회자 자신의 나약함의 문제입니다. 이 목회자의 나약함의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혀 낙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막중하여 그 일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앞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목회자는 이제 진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쫓아 적당히 타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목회자가 나약해 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침륜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의기소침해 지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침륜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끝까지 진리의 방식을 고수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무능함과 무책임이라고 여기며, 침륜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이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의 방식들과 정신들을 적당히 끌어다 쓰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왜곡하게 되는 세 가지 주된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와 교회의 나약함을 타고 20세기에 불어닥친 세속화의 바람과 함께, 수많은 세상 정신들은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정신 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 세상 정신으로 인한 진리의 왜곡으로 더 이상,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 수많은 세상 정신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의 배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교. 혹은 진리왜곡의 현상은 모든 기독교 역사에 늘 있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세상정신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적은,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스스로가 이러한 세상정신을 정화하고 개혁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기독교 역사마다, 늘 배교의 역사와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교회는 그 때마다 이 세력들에 대한 강한 응징과 함께, 교회 스스로가 끊임없이 교회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교회 스스로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과 무리들에 대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정화 하려는 의지 내지는 정신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여긴 미국 복음주의 자들은 1996년 메사추세츠에 함께 모여 캠브리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캠브리지 선언은 120명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슬로건을 다시 한번 재 확인케 하는, 즉, 다섯 가지 솔라(Sola)로 설명되는 역사적 기독교 진리를 다시 입증하는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솔라는,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 온 세상 정신들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세상 정신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지, 그 역사적 된 배경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속에 나타난 진리왜곡의 현상들과 그 배경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늘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영지주의를 비롯한 마르시온과 몬타누스주의같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시대 이후, 등장한 사벨리안이나 아리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들도 끊임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늘 기독교는 다시 시도된 이단의 무리나 혹은 다른 옷을 입고 교묘하게 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단의 무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그들의 진리왜곡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처럼 전세계적으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대중적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세상 정신들이 교회 안으로 급물살처럼 들어오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바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타락한 복음주의를 형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 바로 이 계몽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몽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혁명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그 이전시대를 Pre Modernism시대, 즉 계시의 시대라고 부르고 프랑스혁명 이후의 시대를 모더니즘시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더니즘은 문예나 문화 예술적인 사조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고, 사상적으로는 이 시대를 계몽주의라고 말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프랑스 혁명이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바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시민들에 의해, 당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루이16세를 사형시키고 왕정을 붕괴시켜, 공화정, 혹은 이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사상적 변화입니다. 즉, 중세시대를 정점으로 하여 당시를 지배하던 프리 모더니즘적 사고를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

세를 정점으로 하는 프리모더니즘의 사고란 어떤 것일까요?

프리 모더니즘(계시의 시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고를 일컫는 프리모더니즘의 시대를 요약하며, 초자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계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 서구 유럽은 기독교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가 수소나 산소같은 물질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듯이 이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히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기 전, 이 시대 사람들의 인식론에, 즉 이성 안에는 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회에서 “이 세상은 암모니아, 메탄, 수소, 물에 전기충격이 가해져서 우연히 생겨난가야” 라고 한다면 아니면서, “이 세상은 우연히 뭔가 폭발해서 생긴거야”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그 사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학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인식은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모더니즘적인 사고를 붕괴시키기 시작한 장본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칸트라는 인물입니다. 칸트는 당시 경험론과 인식론으로 대변되는 근세 철학을 극복하고 통합함으로 이제 과학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적 토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칸트가 이룬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 가는데 필요한 이성의 중요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대체해 버림으로 당연히 계시는 하나님을 이성 너머에 있는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 혹은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규정지음으로 인간의 이성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유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관심을 잃게 되고 달성 가능한 과학의 영역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칸트는 결국 신을 알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함으로 불가지론에의 문을 열었으며,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차지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계몽주의(Enlightenment)

그래서 이제, 프랑스혁명과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프리모더니즘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성의 능력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 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필요한 철학적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게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학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꿈과 환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주는 낭만적 희망은 마침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즉,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무한한 신뢰를 줌으로, 인간성에 대해 낙관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절대진리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추구해 나가다보면 결국 모든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가치를 따라 나아가다 보면 파라다이스, 즉 인간이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인간 스스로가 찾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

몽주의가 바탕이 된 여러 사상들이 발흥하게 되는데 바로 ‘이성주의’ ‘과학주의’ ‘절대주의’ ‘진보주의’ ‘낙관주의’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초월적 존재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포기는 기독교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왔는데,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것입니다. 이제 계시는 사람들의 인식 아래로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이 제일이고 이성의 능력에 의한 과학이 인간들의 우상이되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를 따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이 체계적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개념은 하등의 한 개체가 대를 이어가면서 더 복잡하고 더 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가며 적은 수에서 더 많은 수로의 변이를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오귀스트 콩트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대두되게 되고, 헤겔의 영향을 받은 변증법적 진보주의 세계관, 막시즘, 공산주의, 역사에서는 순환사관, 그리고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발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나, 원리나, 정통이니 하는 것 다 집어치우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포용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속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보다도 무서운 심한 왜곡과 변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에서부터 종교 다원주의, 실용주의 같은 독버섯같은 사상들이 이 계몽주의로부터 발흥하게 되고 꽃을 피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절망, 느낌)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가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2차 세계대전입니다. 계몽주의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성과 과학이 자신들을 파라다이스로, 그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2차 세계 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은 파라다이스가 아닌 폐허가 된 자신들을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주었던 낙관론은 무너지게 되고, 그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이제 ‘비합리주의’ ‘상대주의’ ‘다양성의 존중’ ‘불확실성’을 그 특징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은 세상에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객관적인 진리대신 개인들이 스스로 창조해 내는 상대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상대적인 진리를 따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는 “존재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장 중요한 실재는 “내가 지금 살아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이 지배하던 모더니즘의 시대를 넘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느끼는 “느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 진리 판단의 주체서 서게 된 ‘나’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 가

치를 지닌 ‘인간’에 대한 연구보다 앞서게 되어 나 자신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자아로에의 함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화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인간본연에 대한 관심에서 나라는 자아로에의 관심의 이동은 ‘심리적인간’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인간의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이 되고, 나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를 나 스스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 문구가 말해 주듯이 ‘나는 나야’라는 말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문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진리에서 이제 그 진리의 판단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판단의 주체로 우뚝 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야 할 책임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주체가 되어버린 자아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판단도 가당치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주체인데, 가당치 않게 누가 무슨 잣대로 무슨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판단에, 내가 하는 행동에 그 누구도 틀렸다 라던가, 그것은 옳지 않다. 라던가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이던간에 나의 자존감을 해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야 할 책임은 진리판단의 주체로서 거부했지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느낌과 자존감을 세워나 가는데 있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어떤 가치관도, 어떤 방법도, 어떤 대상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종교 다원주의를 활짝 꽃 피우게 하는 토양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시대의 교회들의 고민

그리고,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 낸 끝에, 이제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끌어오게 되고,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심리학적 필요들과, 그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팔아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다양함의 필요들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색칠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변형을 시켜서, 마치 슈퍼마켓에 진열된 수많은 다양한 상품들처럼, 복음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죄인인 구매자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교리가 무너지고, 거룩함과 순결함이 무너지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의 문화센터인지, 영화관인지, 놀이터인지, 정신병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늘날, 좋은 교회, 좋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좋은 교회와 목사는 상당 잘하는 교회와 목사요,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교회와 목사이며, 너그럽게 자신들의 말과 요구

를 잘 들어주는 교회와 목사가 좋은 교회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신앙, 너그러운 신앙, 포용력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래그머티즘(실용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이 시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래그머티즘이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결과중심주의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래그머티즘에서 “이게 바른 방법인가?” 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프래그머티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효율, 혹은 효과” 라는 말입니다. 프래그머티즘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목표달성입니다. 따라서 나의 목표가 바뀌면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거짓이 오늘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래그머티즘은 목표가 바른가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래그머티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과도 역할을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프래그머티즘이 교회에 미친영향

1. 예배: 프래그머티즘은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교리의 순결성, 거룩성을 모두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래그머티즘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든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는 더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변화하게 되고, 더 세상의 문화를 쫓아 세련되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그 문턱의 높이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머티즘적인 사고가, 심리학이나 신비주의나 엔터테인먼트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리화 시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2. 주일학교: 교회안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래그머티즘적 사고는 주일학교의 숫자적 부흥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흥만 시키면, 교회에 나오게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성공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발맞춰 가지 위해 진화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세상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자세를 낮추고, 목소리를 낮추어 더 관용하고, 더 너그럽게 하고, 더 많은 포용력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3. 목회자상: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른 목회자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래그머티즘적 사고가 지배하는 교회에서 원하는 목회자는 세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유머와, 그들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너그러운 포용력과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지식,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심리학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정사역자, 전문상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프래그머티즘적 사고를 가진 교회가 원하는 목사는 슈퍼맨이고, 전문가이며, 상담가이고, 정신과 의사이고, 엔터테이너인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미국의 대 영성가인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 “형제들이여 당신은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 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이 전문화함

따라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직업인의 근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목회의 본질이나, 중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문직업인이 되기를 갈망할수록 눈을 떠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업인적인 온유한 마음이란 없기 때문이며, 전문직업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신의 유혹 앞에 교회가 극복하고 취해야 할 것들

그렇다면, 세상정신이 편만하게 들어와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 과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박순용목사는 그의 책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타난 “믿음에 굳게 서서”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교회들이 극복하고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태도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골로새서 2장 9절 - 3장 14절의 말씀에서 밝혀내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교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정신들로부터 극복하고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이 세 가지와 더불어 두가지를 더 언급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 교리의 개혁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대신 다양한 체험이나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으며, 진리를 진리 되게 해야 할 사명과 그 본질이 있는 교회들이 성공과 치유를 추구하는 교회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프란시스 웨퍼가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체계화 한 교리적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을 무렵, 영국의 감독 라일은 이런 말로 교리를 버리는 교회의 오만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심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내면의 질병을 두려워한다. 그 질병은 사역자가 날카로운 교리를 버리는 경향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의적 진리의 모든 분명한 진수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하나님이 과연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며, 또한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는지,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잘 유의하여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베소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악한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즉, 진리를 사수한 것을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도바울이 세우고, 그의 영적아들인 디모데가 이어 목

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바로 거짓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켜 달라고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유연과 같은 말에 에베소 교회는 생명을 다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8-9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진리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먼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가 아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사데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3:1) 교회는 차고 넘쳐 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이 교회 역시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줄, 부흥하여 부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토해 내치신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담고 있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것이며, 이 말은 다시,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전쟁’ 이란 책에서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최대의 사명,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진리의 방식만이 복음을 복

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설교 안에는 이 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설교 뿐만 아니라, 문답형식과 같은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교회는 늘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교회들은 늘 이 교리 교육을 교회의 최고 사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 교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도 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든 교리의 최소한의 핵심이요,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다섯가지의 ‘솔라’를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예배의 개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은 도덕적 존재인 우리를 영적인 존재이자, 지적인 존재로 준비시켜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함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사람이 있어야 할 가장 복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상실케 되는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개혁은 교리의 개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개혁이 없이는 예배의 개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풍성히 알아가면 갈 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개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는데 예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기 몰입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모든 쇼적인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기 보다는 또 다른 자아를 숭배하는 착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어 내는 흥미위주의 예배,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할리우드식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인간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방의 모든 종교들이나 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정의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지성을 먹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삶의 개혁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입적인 교리들과 예배에 심취해 있는 성도들이 과연 바른 성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인간 자체가 자기 몰입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교리와 예배마저, 그렇게 사람중심적으로 흘러가며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개혁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바른 교리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 온 수 많은 세상정신의 결국은 빛나간 자기사랑의 영성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으며, 말씀도 없고, 오직 죄와 함께 썩어 없어질 인간의 욕망과 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낸, 자기 사랑과 인본주의의 껍데기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자아의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속이 판치는 타락한 복음주의의 현실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상과 몰입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며,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숫자의 우상을 극복하라

이제 네 번째로 오늘날 교회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이 극복해야 할 숫자의 우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큰 것이, 또 많은 것이 진리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숫자적 성공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가진 교회고, 더 축복을 받은 교회고, 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을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특별히 쓰임을 받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 능력 있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숫자노름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어떻게든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방법이니, 이런 것은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직 목표는 숫자를 늘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부흥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이 숫자가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동안 만난 사람이 대략 7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 예수님은 잘해야 그중에 120명 남기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기적은 갈릴리 주변을 온통 흥분과 기대로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최대한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흥분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리가 과연 그 안에 있는냐가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많은 봉사와 대 사회적인 일과, 수 많은 프로그램들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5.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그 풍조가 아무리 갈린다 하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십자가 뿐인 것이며, 교회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이 십자가는 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왜곡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과 내리막의 길을 내달았을 뿐이며, 이와는 반대로 언제나 참된 영적부흥은 선명한 복음과 함께 찾아 왔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상적이고, 타락한 복음주의 시대에, 복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회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유행되어지고 있는,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부요함과 형통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거칠고,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외쳤던 사도바울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으나, 진정한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은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할 참된 신앙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참고도서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박순용 (부흥과 개혁사, 2009)

보조 참고도서

용기 있는 기독교,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2008)

신학실증, 데이비드 웰스(부흥과 개혁사, 2006)

거룩하신 하나님,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2007)

윤리실증,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2007)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데이비드 웰스 (부흥과 개혁사, 2009)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마이클 호튼 (부흥과 개혁사, 2010)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마이클 호튼(나침반, 2008)

분별력, 존 맥아더 (엔크리스토스, 2007)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존 맥아더(부흥과 개혁사, 2008)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존 맥아더 (생명의 말씀사, 2010)

진리 전쟁, 존 맥아더 (생명의 말씀사, 2007)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부흥과 개혁사, 2007)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옥성호 (부흥과 개혁사, 2010)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옥성호 (부흥과 개혁사, 2007)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김남준 (두란노, 2004)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좋은 씨앗, 2005)

예배인가 쇼인가? A.W 토저 (규장, 2005)

참고 미디어

배교 시리즈 설교 1-21번(박순용, 2009)